

## 세션1. 평화교육

# 미래를 위한 여성평화교육: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역량 강화

네지하 라비디

전 튀니지 여성가족아동노인부 장관, 튀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HWPL 이만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9.18 평화 만국회의 제9주년 기념식에 초대해 주신 윤현 속 IWPG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콘퍼런스를 개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3,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왔습니다. 튀니지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BC 850년에는 디도 여왕(Queen Dido)이 최초의 공화국인 카르타고를 건국하고 가장 오래된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AD 735년에는 카이루완(Kairouan)의 아루아 공주(princess Aroua)가 일부다처제를 폐지하고 카이루완 계약으로 알려진 혼인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근대 튀니지를 세운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는 1956년에 가족 관계를 재정비하고 일부다처제를 폐지하며 법적 이혼을 도입하는 개인상태법(Personal Status Code)을 반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남편에 대한 폭종을 명시한 제23조가 상호 존중 개념으로 대체되었으며 어머니에게 후견권을 부여하며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튀니지인 여성의 자녀에게 튀니지 국적을 부여하고, 튀니지 여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법률 73호를 철폐하는 등 연이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58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고 정치적 폭력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녹색선(the green line), 폭력 대응 감시대, 보호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의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행동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편견 없이 서로의 문화와 문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자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모든 신념과 문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차별의 부재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상대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지만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는 안보의 결여와 불안정함, 전염병, 자연재해 및 여성, 어린이와 노인에게 대한 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전쟁의 무기나 방패로 착취되고, 강제로 우리의 사회를 쪼먹는 군사 분쟁에 징용됩니다. 평화와 안보 문제의 해결은 모든 발전과 인권 존중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시된 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이 평화 협상에 참여할 때, 합의 결과가 15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35%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화란 전쟁의 부재가 아닌,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자 마음의 상태, 곧 박애와 신뢰, 정의를 향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 10월에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23주년을 맞아 16일간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생사를 건 탈출과 기근, 모든 종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콘퍼런스와 논의의 장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 스웨덴 외교장관 마르고트 발스트림(Margot Wallström)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도 아프리카연합(AU)의 Agenda 2063과 SDGs를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평화와 안보의 실현을 촉진하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genda 2063은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를 만들고 여성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번 목표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계발하고, 폭력과 차별을 근절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평화교육은 여성과 소녀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들이 필수불가결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리더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한 스피노자의 정의와 같이,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긴 평화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관한 보편적 교육은 모든 형태의 종교 문화 정치적 상대주의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발달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우리는 역사와 사회적 관습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도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내다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재회하게 된 두 시리아 선수 형제와,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또, 여성들이 이끄는 두 나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어린이들,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위안부' 여성들과, IS의 만행을 겪은 야지디족(Yazidites),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을 비롯해 정체성도, 추억할 것도, 미래를 꿈꿀 것도 없이 각지를 떠도는 부랑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과 존중과 수용의 세상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이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전쟁에 맞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